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団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 국정감사 이모저모 : 3면
- ◎ 약초연구기관을 찾아서 : 4면
- ◎ 주산단지순례 : 5면
- (향부자 고령군다산면) : 5면
- ◎ 약초유래를 찾아서 : 6면

수입엑스제
사 용 증 가

근당 2천5백원, 작년시세 절반도 못미쳐

규격화고시후 견재상가 수요 현격히감소

이제 막 수확기에 접어들어 당귀가 유행했던 최상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견재상가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상황이 지속될 경우 견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견재상가들의 견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견재상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당귀 시세는 6백80원, 2천5백~3천원 선으로 작년 6천760원 선 시세의 절반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견재상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당귀 시세는 6백80원, 2천5백~3천원 선으로 작년 6천760원 선 시세의 절반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귀폭락

이제 막 수확기에 접어들어 당귀가 유행했던 최상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견재상가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상황이 지속될 경우 견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견재상가들의 견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견재상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당귀 시세는 6백80원, 2천5백~3천원 선으로 작년 6천760원 선 시세의 절반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도시호가 올해도 풍작이다.

삼도시호 판로부심

풍작 50만평, 70여톤 수확예상

삼도시호가 올해도 풍작이다. 그러나, 계약재배로 일괄 구매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뚜렷한 수요처가 없거나 판로가 제한되어 있어 농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삼도시호가 올해도 풍작이다. 그러나, 계약재배로 일괄 구매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뚜렷한 수요처가 없거나 판로가 제한되어 있어 농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견재상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당귀 시세는 6백80원, 2천5백~3천원 선으로 작년 6천760원 선 시세의 절반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견재상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당귀 시세는 6백80원, 2천5백~3천원 선으로 작년 6천760원 선 시세의 절반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 단 법 인 한국생약협회는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오는 21일 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2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주요행사 내용 및 일정

| 일 정 | 내 용 |
|-----------------------|--|
| 21일 10:00~12:00 | 개장식 행사 출품한약재 품평회 입상자 발표 및 시상식 |
| 21~25일 10:00~14:00 | 수입·국산약재 비교전시회 각 도별 주요생산 품목 전시 건강배개·방향제등 전시 |

일시: 1995년 11월21~25일(5일간)

장소: 용산역 광장

주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후원: 농림수산부, 그린스카우트, 한국경제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제2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약재가
몸에도 좋습니다”

일시: 1995년 11월 21~25일까지 (5일간)

장소: 용산역광장

주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후원: 농림수산부, 한국경제신문 그린스카우트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